東大新聞
根武赫 發行人
李瑄允 編輯人
鄭宋文 主幹
孝 編輯部長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社 東大新聞
電話 交換 ㉾8131~9
本校直通 ㉾8577
每週火曜日發行

今週一言

施安雖小, 其報彌大. 慧從小施, 受見景福.

조그만 즐거움을 버림으로써 큰 갚음을 얻을수 있다면, 어진 이는 그런 즐거움 바라보고 조그만 즐거움 즐거이 버린다.

<法句經>

本校 開校 70周年 紀念

世界 佛教學術會議 開幕

世界10個國 70餘學者 參加

「佛教와 現代世界」 主題로

3個 分科에 30名 主題發表

31日부터 3日間 李總長基調演說

本校 開校70周年紀念 世界佛教學術會議가 「佛教와 現代世界」를 主題로 31日부터 9월2日까지 市內 中區 소재 앰버서더호텔 大會議室에서 개최된다. 世界佛教學術會議에서 개교 70주년 기념행사로 진행해온 이번 불교학술회의에는 韓國, 美國, 日本, 中國, 프랑스, 스리랑카, 캐나다등 10개국에서 70여명의 學者가참석, 사흘간에 걸쳐 각각 2명씩 도합30명이 主題發表를 하게된다. 主題는 3個分科로 구분, 각 분과마다 5개 小主題에 걸쳐 각각 3小主題씩 主題發表가 있을 예정이다.

李瑄根총장은 「佛教와 現代世界」란 주제로 基調演說을 하게 되며, 李承晩전 대통령의 국제정치고문이였던 로버트 T 올리버박사(펜실베니어大명예교수)의 「佛教와 民主主義」 특별강연이 있게 된다.

이어 제1분과 발표및토의에서 3개主題가 발표, 토의되며, 오후 6시부터는 본교 교수실에서 李總長초대 「리셉숀」이 베풀어진다.

31일 開會式은 오전 9시30분부터 三輪依와 般若心經讀誦에 이어 李瑄根총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이어 李西嶺大韓佛教曹溪宗宗正과 柳基春문교장관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李瑄根총장은 「佛教와 現代世界」란 주제로 基調演說을 하게 되며, 李承晩전 대통령의 국제정치고문이였던 로버트 T 올리버박사(펜실베니어大명예교수)의 「佛教와 民主主義」 특별강연이 있게 된다.

이어 제1분과 발표및토의에서 3개主題가 발표, 토의되며, 오후 6시부터는 본교 교수실에서 李總長초대 「리셉숀」이 베풀어진다.

◇第1分科

主題=「現代 國際社會의 이념적 흐름속에서의 佛教의 위치」

▲第1小主題=「東南아시아의 政治的 사상적 흐름속에서의 佛教의 위치」

▲第2小主題=「共産主義의 도전에 직면한 佛教」

▲第3小主題=「자비와 폭력」

▲第4小主題=「西方世界에서의 佛教, 그 현실과 의의」

▲第5小主題=「宗教間의 대립과 불교의 관용」

◇第2分科

主題=「現代人을 위한 生活理想으로서의 佛教」

▲第1小主題=「과학과 현대의 조의 원리로서의 불교」▲第2小主題=「현대인의 경제생활에 대한 불교의 윤리적 견해」▲第3小主題=「현대에 있어서의 관능주의적 사회풍조와 불교」▲第4小主題=「현대인의 정신적 위기와 禪」▲第5小主題=「불교의 교육이상」

◇第3分科

主題=「佛教는 현代社會에어떻게 適應할 것인가」

▲第1小主題=「현대사회에 있어서의 大乘菩薩의 이상」

▲第2小主題=「産業文明時代의 僧伽의 役割」

▲第3小主題=「寺院에 있어서의 노동과 생산성에 관한 문제」▲第4小主題=「현대인의 정신적 위기와 그 극복」▲第5小主題=「불교의 사회참여」

◇第4分科

主題=「現代 社會에 있어서의 佛教의 使命」

▲第1小主題=「佛教의 현대적 해석」▲第2小主題=「불교의 평등사상」▲第3小主題=「불교의 여성관」▲第4小主題=「불교의 자비사상」▲第5小主題=「불교의 인간관」

◇第5分科

主題=「佛教와 現代文化」

▲第1小主題=「불교와 현대예술」▲第2小主題=「불교와 현대과학」▲第3小主題=「불교와 현대문학」▲第4小主題=「현대문명과 불교」▲第5小主題=「불교와 현대정치」

◇第6分科

主題=「佛教와 現代社會」

▲第1小主題=「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불교의 역할」▲第2小主題=「불교와 현대경제」▲第3小主題=「불교와 현대윤리」▲第4小主題=「불교와 현대교육」▲第5小主題=「불교와 현대문화」

李總長開會辭要旨

개교70주년을 맞이한 본교는 세계각국의佛教學者, 宗教社會學者등을 초청하고 본교를 비롯한 한국내 여러대학의 관심있는 교수가 현대사회속의 불교의 현실과 장래를 진단하고 전망하며 불교인 자신의식이야말로 현대사회의 불교를 올바로 인식하는 일을 전제하게 되었다.

오늘날 전세계는 전례없는 變動의 와중에 있다. 邪見과 無定見이 난무하고 문화의 궁극앞에서 또한무엇이 참된 가치인지 모르는 혼돈속에 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불교를 알고 불교를 믿는 우리들은 오직佛陀의 正法만이 현대인과 현대세계를 破統에서 구할수 있음을 믿고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현대의 불교인들이 그 위치와 책임을 똑바로 알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책임을 다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을 남겨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李總長開會辭要旨

개교70주년을 맞이한 본교는 세계각국의佛教學者, 宗教社會學者등을 초청하고 본교를 비롯한 한국내 여러대학의 관심있는 교수가 현대사회속의 불교의 현실과 장래를 진단하고 전망하며 불교인 자신의식이야말로 현대사회의 불교를 올바로 인식하는 일을 전제하게 되었다.

오늘날 전세계는 전례없는 變動의 와중에 있다. 邪見과 無定見이 난무하고 문화의 궁극앞에서 또한무엇이 참된 가치인지 모르는 혼돈속에 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불교를 알고 불교를 믿는 우리들은 오직佛陀의 正法만이 현대인과 현대세계를 破統에서 구할수 있음을 믿고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현대의 불교인들이 그 위치와 책임을 똑바로 알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책임을 다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을 남겨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東國大學校 大學院 農學博士課程修了。

※名譽博士學位 수여자

명단및 略歷

◇鄭寨學(名譽文學博士·淑明女大 文理大敎授)▲略歷=48年 서울大 史學科卒. 65年 社團法人 韓細亞學術研究會 創立. 71年 韓日協力委員會 文化分科委員으로 역임. 62年~現在 淑大 文理大敎授및 박물관장.

◇鄭俊厚(名譽法學博士·中國延北市 경찰국장)▲略歷=동오大學卒. 서독연방정부에서 경찰행정 연구. 국제형사경찰기구중화민국 총대표역임. 66年 기륭市 경찰국장. 在職時 부산市 경찰국과 자매결연 주선. 68年 서울市 경찰국과 대북市 경찰국의 자매결연 주선.

後期卒業式制 폐지

學位證만受領토록

學部 후기졸업식이 폐지되고 75학년도 후기 學士學位 취득자 1인 경우에 한하여 10월 중순경 학위증서와 學位증書를 10일 이내에 수령하도록 되었다.

금년도부터 후기졸업식이 폐지된 이유는 매년 후기졸업생수가 감소하는 현실에 따라 취해진 조처이다.

4日、後期學位 博士 6、名博 2、碩士 21名 授與式

學校 후기 卒業式에서 名譽文學博士學位를 받았다.

◇鄭寨學(名譽文學博士·本校 敎授)=「南北傳六部律藏比較 研究-四分律比丘戒本을 중심으로」▲略歷=67年 東國大 大學院 석사과정卒, 72年 東國大大學院에서 박사과정수료, 68~74年 東國學院理事역임, 75年~現在 本校佛大 전임강사.

◇李智冠(哲學博士·本校 敎授)=「南北傳六部律藏比丘戒本의 研究-四分律比丘尼戒本을 중심으로」▲略歷=67年 東國大 大學院 석사과정卒, 72年 東國大大學院에서 박사과정수료, 68~74年 東國學院理事역임, 75年~現在 本校佛大 전임강사.

◇金鎔貞(哲學博士·本校 哲學科 조교수)=「칸트에있어서의 自然과 自由에 관한 研究」▲略歷=1919년 전북 고창出生▲35년中央佛專수료▲36년 東亞日報에 詩「壁」이 당선함으로써 詩作活動▲46년 東亞大 교수▲48년 東國大大學院 석사과정卒, 72年 東國大大學院에서 哲學科 敎授▲55년 文敎部 藝術院會員▲55년 亞細亞自由文學賞 수상▲56년本校敎授(현재까지)▲61년 五·一六 文藝賞 수상▲66년 한국 藝術院賞수상▲詩集=北蛇集(38년)·歸途(46년)·新羅抄(61년)·冬天(68년)·徐廷柱詩選(55·72년)·徐廷柱文學全集(전5권 75년)·절개재神話(75년)外 未堂論想錄(76년)

◇趙炯甲(經濟學博士·東國大學院 經濟學科 敎授)=「資本과 이윤에 관한 硏究」▲略歷=1924년 경남 남전군 출생▲52년 朝鮮大 경제과卒, 68~69년 全南大 경영大學院 敎授, 65~68년 중소기업은행기업진단조사부 부장, 72~75년 동국대학교 학생과장, 70년 同대학원 교학과장, 70~72년 본교 학생과장, 75년 현재 본교 학생과 敎授.

◇鄭東敏(農學博士·동국대 농과大學 敎授)=「X-線처리로 誘起된 무우의 雄性不稔性에 관한 遺傳子分析및 조직학적 調査의 利用에 관한 硏究」▲略歷=70~73년東國大大學院 農學科博士課程修了.

◇成煥祥(農學博士·晋州敎育大敎授)=「在來種 들깨의 花成 品種및成分에 관한 硏究」▲略歷=57年 晋州農林大學 農學科 卒業, 71~74年 東國大大學院農學博士課程修了.

◇鄭秉學(名譽博士·本校 敎務部行事)=物心兩面으로 협조한 일우해 운주식회사 同門6名에게 感謝牌를 전달했다.

이날 李總長은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여러同門의 협조로 행사가 더욱 알차게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선후배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것』을 당부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李智冠박사 ◇金鎔貞박사

◇印權植박사 ◇趙炯甲박사

◇鄭東敏박사 ◇成煥祥박사

◇鄭秉學名譽博 ◇鄭俊厚名譽博

洞窟探險등 활발

夏期放學中 學生 活動

徐廷柱 敎授에

淑大서 名譽文博

徐廷柱교수 文理大 國文科 지난23日 淑明女子大學校 후기 卒業式에서 名譽文學博士學位를 받았다.

◇徐廷柱博士 略歷

▲1915년 전북 고창出生▲35년中央佛專수료▲36년 東亞日報에 詩「壁」이 당선함으로써 詩作活動▲46년 東亞大 교수▲48년 東國大大學院 석사과정卒, 72年 東國大大學院에서 박사과정수료, 68~74年 東國學院理事역임, 75年~現在 本校佛大 전임강사.

夏季奉仕活動中 學生 10個部隊 3百여名 參加

特殊訓練도 마쳐

本校 學徒護國團 18명은 7월26일부터 8월14일까지 3주간에걸쳐 大學生特殊訓練(공수, 산악, 해상)을 받았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의 1차 동록 기간중에 동 교지서를 발부받아 교무과에서 학적대조를 한후 경리과의 추천서로 서울市所在한 은행 (本校는 대구은행지점에 있음)에서 수속절차를 밟으면 된다.

수속절차는 2전원이상의 재산세납부자 보증인 2명과 학부형의 인감및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면된다.

지난 23일 開學과 함께 캠퍼스는 오랜 방학에서들 아온 학생들로 활기를 되찾았다.

특히 經理課창구에는 등록금 납부와 동록으로, 敎務課는 학적대조, 수강신청카드배부로 더욱 분비기 시작했다.

교무과에서는 수강신청日程과 진정발법을 일부 변경을 각학과 主任교수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교무과에 일괄 제출하면 출석부는 학생이 그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방학중 학생들은 봉사활동, 學徒護國團간부 수련대회, 大學生특수훈련참가, ROTC병영훈련, 여학생 군사훈련등에 참가했으며 방학중에도 도서관은 면학에 열중하는 學生들로 가득찼었다.

특강도 꾸준히 진행되어 연초에는 本校 學德講座 8명이 8월1일부터 7일까지 훈련을 받았으며 또한 공수훈련에는 이운호(警察·3)군등 6명이 참가하여 8월9일부터 8월21일까지 실시되었는데, 본교에서는 산악훈련에는 박교호(農經·3)군등 6명이 31일까지 海上훈련에는 이연호(林學·3)군등 6명이 8월1일부터 7일까지 훈련을 받았다. 또한 공수, 산악훈련은 연대를 위해 실시된 이번 훈련은 6명씩이 배치되어 실시되었는데, 본교에서는 3군등 6명이 8월26일부터 9월2日까지 훈련을 받았다.

◇特殊訓練도 마쳐

本校 學德講座 18명은 7월26일부터 8월14일까지 3주간에걸쳐 大學生特殊訓練(공수, 산악, 해상)을 받았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의 1차 동록 기간중에 동 교지서를 발부받아 교무과에서 학적대조를 한후 경리과의 추천서로 서울市所在한 은행 (本校는 대구은행지점에 있음)에서 수속절차를 밟으면 된다.

수속절차는 2전원이상의 재산세납부자 보증인 2명과 학부형의 인감및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면된다.

追加登錄 2·3兩日

學資金융자 申請받아

經理課에서는 追加登錄期間을 9월 2·3兩日로設定하고 이 기간중 전학생의 동록을 받기로 했다.

또한 이기간 중에도 학자금 융자신청을 계속받고 있는데 절차는 經理課에서 교지서를 발부받아 교무과에서 학적대조를 한후 경리과의 추천서로 서울市所在한 은행 (本校는 대구은행지점에서도 가능)에서 수속절차를 밟으면 된다.

受講申請 23日~4日限

各科 主任敎授에게 提出

開學 부주한 大學街

世界10個國 70餘學者 參加

「佛教와 現代世界」 主題로

3個 分科에 30名 主題發表

31日부터 3日間 李總長基調演說

本校 開校70周年紀念 世界佛教學術會議가 「佛教와 現代世界」를 主題로 31日부터 9월2日까지 市內 中區 소재 앰버서더호텔 大會議室에서 개최된다. 世界佛教學術會議에서 개교 70주년 기념행사로 진행해온 이번 불교학술회의에는 韓國, 美國, 日本, 中國, 프랑스, 스리랑카, 캐나다등 10개국에서 70여명의 學者가참석, 사흘간에 걸쳐 각각 2명씩 도합30명이 主題發表를 하게된다. 主題는 3個分科로 구분, 각 분과마다 5개 小主題에 걸쳐 각각 3小主題씩 主題發表가 있을 예정이다.

李瑄根총장은 「佛教와 現代世界」란 주제로 基調演說을 하게 되며, 李承晩전 대통령의 국제정치고문이였던 로버트 T 올리버박사(펜실베니어大명예교수)의 「佛教와 民主主義」 특별강연이 있게 된다.

이어 제1분과 발표및토의에서 3개主題가 발표, 토의되며, 오후 6시부터는 본교 교수실에서 李總長초대 「리셉숀」이 베풀어진다.

31일 開會式은 오전 9시30분부터 三輪依와 般若心經讀誦에 이어 李瑄根총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이어 李西嶺大韓佛教曹溪宗宗正과 柳基春문교장관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第1分科

主題=「現代 國際社會의 이념적 흐름속에서의 佛教의 위치」

▲第1小主題=「東南아시아의 政治的 사상적 흐름속에서의 佛教의 위치」

▲第2小主題=「共産主義의 도전에 직면한 佛教」

▲第3小主題=「자비와 폭력」

▲第4小主題=「西方世界에서의 佛教, 그 현실과 의의」

▲第5小主題=「宗教間의 대립과 불교의 관용」

◇第2分科

主題=「現代人을 위한 生活理想으로서의 佛教」

▲第1小主題=「과학과 현대의 조의 원리로서의 불교」▲第2小主題=「현대인의 경제생활에 대한 불교의 윤리적 견해」▲第3小主題=「현대에 있어서의 관능주의적 사회풍조와 불교」▲第4小主題=「현대인의 정신적 위기와 禪」▲第5小主題=「불교의 교육이상」

◇第3分科

主題=「佛教는 현代社會에어떻게 適應할 것인가」

▲第1小主題=「현대사회에 있어서의 大乘菩薩의 이상」

▲第2小主題=「産業文明時代의 僧伽의 役割」

▲第3小主題=「寺院에 있어서의 노동과 생산성에 관한 문제」▲第4小主題=「현대인의 정신적 위기와 그 극복」▲第5小主題=「불교의 사회참여」

◇第4分科

主題=「現代 社會에 있어서의 佛教의 使命」

▲第1小主題=「佛教의 현대적 해석」▲第2小主題=「불교와 현대경제」▲第3小主題=「불교와 현대윤리」▲第4小主題=「불교와 현대교육」▲第5小主題=「불교와 현대문화」

◇第5分科

主題=「佛教와 現代文化」

▲第1小主題=「불교와 현대예술」▲第2小主題=「불교와 현대과학」▲第3小主題=「불교와 현대문학」▲第4小主題=「현대문명과 불교」▲第5小主題=「불교와 현대정치」

◇第6分科

主題=「佛教와 現代社會」

▲第1小主題=「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불교의 역할」▲第2小主題=「불교와 현대경제」▲第3小主題=「불교와 현대윤리」▲第4小主題=「불교와 현대교육」▲第5小主題=「불교와 현대문화」

李總長開會辭要旨

개교70주년을 맞이한 본교는 세계각국의佛教學者, 宗教社會學者등을 초청하고 본교를 비롯한 한국내 여러대학의 관심있는 교수가 현대사회속의 불교의 현실과 장래를 진단하고 전망하며 불교인 자신의식이야말로 현대사회의 불교를 올바로 인식하는 일을 전제하게 되었다.

오늘날 전세계는 전례없는 變動의 와중에 있다. 邪見과 無定見이 난무하고 문화의 궁극앞에서 또한무엇이 참된 가치인지 모르는 혼돈속에 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불교를 알고 불교를 믿는 우리들은 오직佛陀의 正法만이 현대인과 현대세계를 破統에서 구할수 있음을 믿고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현대의 불교인들이 그 위치와 책임을 똑바로 알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책임을 다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을 남겨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李智冠박사 ◇金鎔貞박사

◇印權植박사 ◇趙炯甲박사

◇鄭東敏박사 ◇成煥祥박사

◇鄭秉學名譽博 ◇鄭俊厚名譽博

洞窟探險등 활발

夏期放學中 學生 活動

徐廷柱 敎授에

淑大서 名譽文博

徐廷柱교수 文理大 國文科 지난23日 淑明女子大學校 후기 卒業式에서 名譽文學博士學位를 받았다.

◇徐廷柱博士 略歷

▲1915년 전북 고창出生▲35년中央佛專수료▲36년 東亞日報에 詩「壁」이 당선함으로써 詩作活動▲46년 東亞大 교수▲48년 東國大大學院 석사과정卒, 72年 東國大大學院에서 박사과정수료, 68~74年 東國學院理事역임, 75年~現在 本校佛大 전임강사.

夏季奉仕活動中 學生 10個部隊 3百여名 參加

特殊訓練도 마쳐

本校 學德講座 18명은 7월26일부터 8월14일까지 3주간에걸쳐 大學生特殊訓練(공수, 산악, 해상)을 받았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의 1차 동록 기간중에 동 교지서를 발부받아 교무과에서 학적대조를 한후 경리과의 추천서로 서울市所在한 은행 (本校는 대구은행지점에서도 가능)에서 수속절차를 밟으면 된다.

수속절차는 2전원이상의 재산세납부자 보증인 2명과 학부형의 인감및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면된다.

追加登錄 2·3兩日

學資金융자 申請받아

經理課에서는 追加登錄期間을 9월 2·3兩日로設定하고 이 기간중 전학생의 동록을 받기로 했다.

또한 이기간 중에도 학자금 융자신청을 계속받고 있는데 절차는 經理課에서 교지서를 발부받아 교무과에서 학적대조를 한후 경리과의 추천서로 서울市所在한 은행 (本校는 대구은행지점에서도 가능)에서 수속절차를 밟으면 된다.

수속절차는 2전원이상의 재산세납부자 보증인 2명과 학부형의 인감및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면된다.

受講申請 23日~4日限

各科 主任敎授에게 提出

開學 부주한 大學街

지난 23日 開學과 함께 캠퍼스는 오랜 방학에서들 아온 학생들로 활기를 되찾았다.

특히 經理課창구에는 등록금 납부와 동록으로, 敎務課는 학적대조, 수강신청카드배부로 더욱 분비기 시작했다.

교무과에서는 수강신청日程과 진정발법을 일부 변경을 각학과 主任교수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교무과에 일괄 제출하면 출석부는 학생이 그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방학중 학생들은 봉사활동, 學徒護國團간부 수련대회, 大學生특수훈련참가, ROTC병영훈련, 여학생 군사훈련등에 참가했으며 방학중에도 도서관은 면학에 열중하는 學生들로 가득찼었다.

특강도 꾸준히 진행되어 연초에는 本校 學德講座 8명이 8월1일부터 7일까지 훈련을 받았으며 또한 공수훈련에는 이운호(警察·3)군등 6명이 참가하여 8월9일부터 8월21일까지 실시되었는데, 본교에서는 산악훈련에는 박교호(農經·3)군등 6명이 31일까지 海上훈련에는 이연호(林學·3)군등 6명이 8월1일부터 7일까지 훈련을 받았으며 또한 공수, 산악훈련은 연대를 위해 실시된 이번 훈련은 6명씩이 배치되어 실시되었는데, 본교에서는 3군등 6명이 8월26일부터 9월2日까지 훈련을 받았다.

◇特殊訓練도 마쳐

本校 學德講座 18명은 7월26일부터 8월14일까지 3주간에걸쳐 大學生特殊訓練(공수, 산악, 해상)을 받았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의 1차 동록 기간중에 동 교지서를 발부받아 교무과에서 학적대조를 한후 경리과의 추천서로 서울市所在한 은행 (本校는 대구은행지점에서도 가능)에서 수속절차를 밟으면 된다.

수속절차는 2전원이상의 재산세납부자 보증인 2명과 학부형의 인감및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면된다.

追加登錄 2·3兩日

學資金융자 申請받아

經理課에서는 追加登錄期間을 9월 2·3兩日로設定하고 이 기간중 전학생의 동록을 받기로 했다.

또한 이기간 중에도 학자금 융자신청을 계속받고 있는데 절차는 經理課에서 교지서를 발부받아 교무과에서 학적대조를 한후 경리과의 추천서로 서울市所在한 은행 (本校는 대구은행지점에서도 가능)에서 수속절차를 밟으면 된다.

수속절차는 2전원이상의 재산세납부자 보증인 2명과 학부형의 인감및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면된다.

駒澤大生本校訪問 博物館등校內見學

駒澤大學 本校 北海島敎育部 日本合同聲樂訪問團 一行 32명(학생 27명) 이 전 9시 學生課長 본교를 방문, 學校紹介를 받고 博物館등학교시설을 견학했다.

文理科大學 佛敎大學

學科	試驗科目	定員
國語國文學科	必須科目 國語(Ⅰ) 英語 國史 選擇科目(擇1) 數學(Ⅰ) 一般社會 家政	三〇
英語英文學科		三〇
史學科		二〇
數學科		三〇
物理學科		三〇
化學科		三〇
統計學科		三〇
哲學科		二〇
印度哲學科		二〇
佛敎學科		二〇
僧伽學科		二〇

法政大學

學科	試驗科目	定員
法學科	必須科目 國語(Ⅰ) 英語 國史 選擇科目(擇1) 數學(Ⅰ) 一般社會 家政	二五
政治·外交學科		二五
行政學科		二五
警察行政學科		三〇

經商大學

學科	試驗科目	定員
經濟學科	必須科目 國語(Ⅰ) 英語 國史 選擇科目(擇1) 數學(Ⅰ) 一般社會 家政	三五
貿易學科		三五
經營學科		四〇
電子計算學科		四〇

農林大學

學科	試驗科目	定員
農學科	必須科目 國語(Ⅰ) 英語 國史 選擇科目(擇1) 數學(Ⅰ) 一般社會 家政	二五
林學科		二五
農業經濟學科		三〇
農業生物學科		二〇
造景學科		四〇

工科大學

學科	試驗科目	定員
電子工學科	必須科目 國語(Ⅰ) 英語 國史 選擇科目(擇1) 數學(Ⅰ) 一般社會 家政	四〇
電氣工學科		三〇
土木工學科		三〇
建築工學科		四〇
化學工學科		三〇
食品工學科		三五
工業經營學科		二五

師範大學

學科	試驗科目	定員
敎育學科	必須科目 國語(Ⅰ) 英語 國史 選擇科目(擇1) 數學(Ⅰ) 一般社會 家政	三〇
國語敎育科		三〇
社會敎育科		三〇
國史敎育科		四〇
家政敎育科		三〇
數學敎育科		二五
科學敎育科		三〇
電子計算學科		三〇
工業經營學科		三〇

二部

學科	試驗科目	定員
國語國文學科	必須科目 國語(Ⅰ) 英語 選擇科目(擇1) 數學(Ⅰ) 一般社會 家政	三〇
英語英文學科		三〇
史學科		二〇
數學科		三〇
物理學科		三〇
化學科		三〇
統計學科		三〇
哲學科		二〇
印度哲學科		二〇
佛敎學科		二〇
僧伽學科		二〇
經濟學科		三五
貿易學科		三五
經營學科		四〇
電子計算學科		四〇
政治·外交學科		二五
行政學科		二五
警察行政學科		三〇
農學科		二五
林學科		二五
農業經濟學科		三〇
農業生物學科		二〇
造景學科		四〇
電子工學科		四〇
電氣工學科		三〇
土木工學科		三〇
建築工學科		四〇
化學工學科		三〇
食品工學科		三五
工業經營學科		二五
敎育學科		三〇
國語敎育科		三〇
社會敎育科		三〇
國史敎育科		四〇
家政敎育科		三〇
數學敎育科		二五
科學敎育科		三〇
電子計算學科		三〇
工業經營學科		三〇

藝體能系

學科	試驗科目	定員
美術學科	必須科目 國語(Ⅰ) 英語 實技	三〇
演劇映畫學科		二〇
體育敎育科		三〇

一九七七學年度 東國大學校 男女學生募集

一、銓衡期間=一九七七年二月二日(水)

二、願書交付=一九七七年一月五日(水)~一月三十一日(月)

三、願書接受=一九七七年一月十日(月)~一月三十一日(月)

四、예비고사성적을 50%반영함。

五、其他 詳細한것은 本大學校 敎務課로 問議할것

一九七六年八月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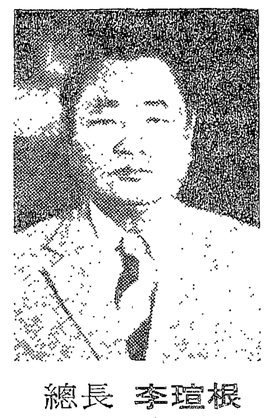
東國大學校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26번지

㉾8131~9 ㉾8141~5 敎務課 直通 ㉾8150

開校70周年紀念 佛教의 現代世界에 관한 佛教學術會議 特輯

佛教와 現代世界



唯物論的 思考方式의 팽배는 모든 宗教의 危機이 되고 있다. 相扶相助의 平和보다는 憎惡가 가득찬 상황속에서 佛教의 새로운 解釋, 再闡明은 시급하다. 이런 뜻에서 本校에서 開校 70주년 紀念行事로 「佛教와 現代世界」에 관한 世界佛教學術會議를 開催하게 된것은 매우 뜻깊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 다음 글은 이學術會議에서 가진 李瑄根總長의 基調演說全文이다.

李瑄根 總長

人文·社會科學的 角度에서 佛教研究 필요

佛教의 世界的 難題 診斷과 處方이 契機

生命力 발휘如否, 人類死活의 關鍵

政治와 經濟, 社會倫理와 情緒的 活動, 個人과 家庭과 社會의 國家의 모든 生活領域에서 佛教는 그 地域의 生活樣式을 提示해주었읍니다.

특히 우리 韓國으로 말하자면 그 긴 歷史時代에서 佛教처럼 肯定的인 役割을 한 다른 宗教를 찾아 볼수가 없읍니다. 西曆紀元後 二世紀에 導入된 佛教는 우리 古代社會의 歷史의 向方을 결정짓는 重大한 役割을 했읍니다. 佛教的 生活理想이 國土로부터 大臣 將軍 기타 社會指導者와 一般大衆에서까지 깊은 影響을 끼쳤던 新羅에서 바로 統一的 民族國家의 싹을 펐고, 마침내 가장 燦爛한 文化의 創造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읍니다。新羅와 高麗, 이 두 王朝이 결쳐 4百年동안 佛教는 우리 國人들의 精神的 支柱가 되었으며 유일한 人生의 羅針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社會指導者와 歷史的 盛衰의 樣相이 나타났고 이로 말미암아 李朝五百年間의 排佛의 時期가 到來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表面上 排佛의 시기에 있어서도 저도 一旦 有事時에 國家와 民衆의 安寧을 지키기위해 저력을 발휘하여 侵略을 저지한 것은 바로 佛教人이었음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佛教는 실로 世界역사상에서가장 중요한 影響力을 발휘한 宗教思想의 하나로서 西方世界에서의 基督教의 役割에 比肩하고도 남는 重大한 역할을 東아시아및 東南아시아에서 해왔읍니다。

그러나 第二次世界大戰이 끝난 후 점차로 世界의 構造와 樣相은 달라지기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宗教가 遂行해온 役割과 挑戰에 直面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읍니다。수많은 新生國家가 出現했고 西方列强의 政治的影響力은 減少되었으며, 그 대신 소련과 中共등 共産主義國家의 政治的 影響은 이 新生國家들에서 날로 격증되어왔고 그들의 이러한 攻勢는 나날이 더욱 奇烈化되고 있읍니다。西方世界는 政治的으로 뿐만 아니라, 思想的 文化的으로도 그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읍니다。현대인들 간에는 종래의 行動樣式을 격렬하고 거칠게 투쟁의 양식으로 몰아 넣었읍니다。그리하여 이제 이 세계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 國家와 國家사이에서 선의의 협조와 상부상조와 평화로운 마음의 대화와 信頼의 關係를 유지하거나 기대할 수 없게 만들고 있읍니다。기술혁명의 飛躍가 자행하고 있는 폭력의 亂舞가 자행되고 있읍니다。그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인류사상 가장 처참한 殺戮戰爭을 네포하고 있읍니다。더럽과 착취의 樣態는 비단 政治 經濟의 面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며, 그것은 자치없고 있읍니다。이것은 종교의 無力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이것은 어쩌면 唯物主義의 종교에 대한 공격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현대인들 간에는 종교가 人類의 歷史上에서 너무나 많은 貢獻을 해 왔읍니다。東半球의 諸國民은 佛教가 아니였더라면 生活의 指針과 文化的 矜持를 찾을수 없었을 긴 期間에 걸친 歷史를 가지고 있읍니다。西歷紀元前 六世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全世界에서 가장 오랜 歷史的 傳統을 가진 佛教의 流布地域은 西는 카슈밀에서부터 東은 日本列島에 이르기까지 北은 蒙古의 沙漠에서부터 南은 자바의 야자수밭에 이르기까지 廣汎하고 多樣한 風土의 文化를 살찌게 하였읍니다。佛教는 그 地域의 諸國民의 繁榮의 母胎이였으며, 젖줄기였고, 仁慈한 어머니였읍니다。

佛教는 오랜 期間에 걸쳐 人類의 歷史上에서 至大한 貢獻을 해 왔읍니다。東半球의 諸國民은 佛教가 아니였더라면 生活의 指針과 文化的 矜持를 찾을수 없었을 긴 期間에 걸친 歷史를 가지고 있읍니다。西歷紀元前 六世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全世界에서 가장 오랜 歷史的 傳統을 가진 佛教의 流布地域은 西는 카슈밀에서부터 東은 日本列島에 이르기까지 北은 蒙古의 沙漠에서부터 南은 자바의 야자수밭에 이르기까지 廣汎하고 多樣한 風土의 文化를 살찌게 하였읍니다。佛教는 그 地域의 諸國民의 繁榮의 母胎이였으며, 젖줄기였고, 仁慈한 어머니였읍니다。

佛教는 오랜 期間에 걸쳐 人類의 歷史上에서 至大한 貢獻을 해 왔읍니다。東半球의 諸國民은 佛教가 아니였더라면 生活의 指針과 文化的 矜持를 찾을수 없었을 긴 期間에 걸친 歷史를 가지고 있읍니다。西歷紀元前 六世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全世界에서 가장 오랜 歷史的 傳統을 가진 佛教의 流布地域은 西는 카슈밀에서부터 東은 日本列島에 이르기까지 北은 蒙古의 沙漠에서부터 南은 자바의 야자수밭에 이르기까지 廣汎하고 多樣한 風土의 文化를 살찌게 하였읍니다。佛教는 그 地域의 諸國民의 繁榮의 母胎이였으며, 젖줄기였고, 仁慈한 어머니였읍니다。

社說

무엇을 할 때인가

무더운 여름放學이 끝나고 이제 맑고도 푸른 所望의 가을學期가 왔다。大學街의 이곳 저곳에선 한기찬 談論의 꽃話가 무르녹고 있다。農家에는 結實과 收穫의 기쁨을 눈앞에 둔 경건한 新願과 讚美와 感謝의 季節의 순환법칙에 따라서 온 맑고도 청신한 기운이 온 누리에 넘쳐 흐르는 것이 있다。無限한 知的意慾을 活化하는 곳에 젊음의 可能性이 기약되는 그런 가을學期가 온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가을은 정작 이렇게 왔을까。평범한 季節의 순환법칙에 따라서 온 맑고도 청신한 것만이였을까。不幸하게도 우리에겐 맑고도 청신한가을로 오지않는 분노의 먹구름과 그리하여 적어도 냉엄하게 自己確認을 해야 하고, 決意의 주먹을 쥐어야할 그런 가을의 信號로 왔다。

그것은 國家民族的인 분노를 넘어서 全人類의 공분을 또 다시 자아낸 北傀의 殺人만행을 지목할수 있다。平和를 사랑하는 人類의 良心에 정면으로 도끼질을 한 板門店의 8·18蛮行가 그것이다。너무도 어이없는 反人間의 反道德의, 그리고 용납없이 狂氣어린 殺人魔의 작태를 우리는 보았다。同族이라는 진한 핏줄의 감상적인 發想마저 짓밟은 殘忍, 그런 邪惡의 무리가 우리 이제 맑고도 푸른 所望의 가을學期가 왔다。大學街의 이곳 저곳에선 한기찬 談論의 꽃話가 무르녹고 있다。農家에는 結實과 收穫의 기쁨을 눈앞에 둔 경건한 新願과 讚美와 感謝의 季節의 순환법칙에 따라서 온 맑고도 청신한 기운이 온 누리에 넘쳐 흐르는 것이 있다。無限한 知的意慾을 活化하는 곳에 젊음의 可能性이 기약되는 그런 가을學期가 온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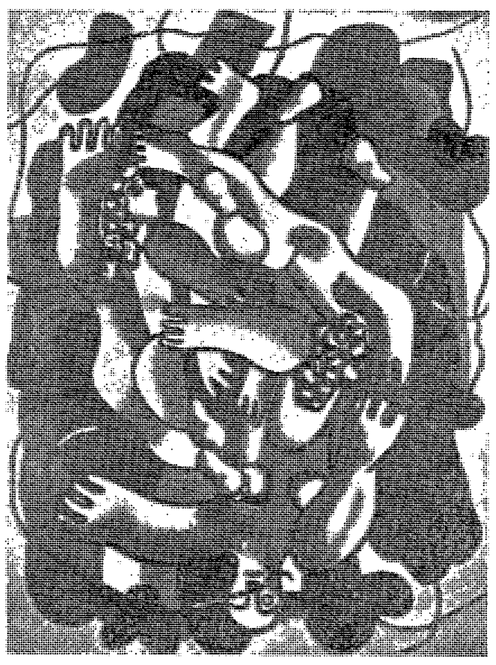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의 가을은 정작 이렇게 왔을까。평범한 季節의 순환법칙에 따라서 온 맑고도 청신한 것만이였을까。不幸하게도 우리에겐 맑고도 청신한가을로 오지않는 분노의 먹구름과 그리하여 적어도 냉엄하게 自己確認을 해야 하고, 決意의 주먹을 쥐어야할 그런 가을의 信號로 왔다。

그것은 國家民族的인 분노를 넘어서 全人類의 공분을 또 다시 자아낸 北傀의 殺人만행을 지목할수 있다。平和를 사랑하는 人類의 良心에 정면으로 도끼질을 한 板門店의 8·18蛮行가 그것이다。너무도 어이없는 反人間의 反道德의, 그리고 용납없이 狂氣어린 殺人魔의 작태를 우리는 보았다。同族이라는 진한 핏줄의 감상적인 發想마저 짓밟은 殘忍, 그런 邪惡의 무리가 우리

特別講演全文

佛教와 民主主義

開校70周年紀念 佛教와 現代世界에 관한 世界佛教學術會議 特輯



◇잠수하는 사람들／레제作
1942~46년. 유채. 250×185㎝

平等思想·自由討論이 共同信念

宗教·政治, 人間本性과 狀況의 所産
붇다의 修辭學, 民主主義 教說

〈美 펜실버니아大名譽教授〉
R·T·올리버 博士

○…○ 「로버트 T·올리버」博士는 李承晩前대통령의 국제정치 고문 顧問을 18년간 역임한 美國의 著名한 學者로서 「佛教와 現代世界에 관한 世界佛教學術會議」에 소개되는 글은 이번 本校 開校70周年紀念 世界佛教學術會議(8月31日~9月2日) 特別講演의 演士로 초청된 올리버 博士가 佛教와 現代世界를 이해하기 위해 佛教와 民主主義가 어떻게 調和, 發展해 나가는가를 밝힌 「佛教와 民主主義」의 全文이다。올리버博士는 本文중에서 제기된 두 질문, 즉 「佛教社會극 必然的으로 非民主的인가」「佛教는 民主主義를 支持하고 承認하는가」를 中心으로 開幕 첫날 特別講演을하게 된다。<編輯者註>

韓國佛教는 險難하고 긴 歷史를 가지고 있으며, 4世紀 後半의 三國時代까지 거슬러 올라간다。佛教는 그 知的, 哲學的인 性格面에 있어서나, 政治的인 영향력면에 있어서 그 受容初부터 王宮과 貴族에 관계되어 왔고 後代에 내려와서는 大衆과 관련을 맺어왔다。다른 宗教와 마찬가지로 佛教는 民衆 사이에 있어서는 단순한 儀式主義와 迷信으로 墮落해갔다。이는 조금도 놀랄만한 일은 아니였다。왜냐하면 어떠한 宗教的 哲學的 체계에 있어서도 各 階層의 사람들은 그들의 要求와 理解에 가장 適合한 것을 찾는 법이기 때문이다。그리하여 韓國社會에서 中流階級이 擡頭되자 佛教는 知識層의 사람들에게 더하여 適合한 思想과 영향을 주게 되였다。

韓國에 있어서 民主主義의 역사는 아직 짧아서, 기껏 1948年8月15日, 大韓民國 樹立의 數年前으로 遡及된다。그歷史도 또한 기구하고 波瀾이 많아서 佛教처럼 外的 內的 제圓의 要求에 適應하여 變更되고 形態가 바뀌어왔다。또 한번 教育받은 中流層이 韓國에 出現함에 따라 知的, 精神的, 그리고 經濟的 要求와 能力에 適合한 政府를 保障하기위해 市民의 權利와 自由를 保護할 것이 期待되였을 것이다。

佛教도 民主主義도 어느곳 어느 때를 莫論하고 眞空속에 存在할 수는 없다。宗教體系도 政治體制도 人間의 마음과 주어진 狀況의 共同所産이다。宇宙的 實在의 本性이 부엇인지 그리고本來的인 眞理가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이러한 本來的인 要素 가운데는 生活과 自由, 그리고 幸福의 追究에 도움을 주는 條件들이 있고 그것을 은 佛教와 民主主義 그 兩者에모두 귀중한 目標들이다。또 세상에는 모든 宗教制度나 政治形態가 經驗하는 것이지만 이러한바 람직한 目標의 追究에 지장을주는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가장 잘 描寫된 佛教의 理想이나 또 가장 잘 描寫된 民主主義의 理想은 우리 모두가 到達코자 노력하는 것이 파연 무엇인가를 잘 말해주는 하나의뛰어난 標準이 될만한 質慮를 지니고 있다。그러나 그러한 理想的 敍述은 주어진 社會에서 現實的으로 있는 佛教나 民主主義의實際的인 運營과 混同이 되어서는 안된다。특히 오늘의 韓國社會는 經濟的 政治的 軍事的 그리고國內的 國際的으로 지극히 거센환경의 變化속에 處해 있으며 이것은 不可避하게 그 指導原理의 本來의 性格에서 汪廻變形된 길을 달리게 하고 있다。

마음속에 이러한 展望, 즉 和解와 矛盾, 그리고 拘束的이고威脅的인 條件을 줄여지고있는 社會의 限界性에 대한 예민한 覺醒을 갖고서 나에게 주어진 主題인 「佛教와 民主主義」의 관계를 最善을 다해 다뤄 보려한다。

나는 佛教와 政治學의 兩著에 專門家로서 接近할 수는 없기때문에 다만 現代韓國에서 이 두 體制의 相互的 役割에 관해 꿩정하게 摸索해 왔던 것을 여러분과 솔직히 피력할 수 있을뿐이다。

韓國에 있어서 佛教와 民主主義는 現狀況이 暗示하는 것보다 더욱 밝고 有望한 未來를 가지고 있다。그들이 함께 發展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그리고 그들이 理想을 향해 前途를 제속하고 복돋움에 따라서 그들이 相扶相助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할 많은 점이 있는것이다。

民主主義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佛教에는 人間의 優秀한 思考와 應需에 따스하게 어필하는 것이 많다。네가 알고있는 가장 매력적인 宗教우화 가운데 하나는 언젠가 고오타마 붇다가 그의 精舍에서 젊은 경찰에 관한 것이다。어느날 한 여인이 꽃에 그녀의 죽은 어린애를 안고 그에게 와서 어린애의 生命을 回生시켜 달라고 懇願했다。고오타마는 매우 부드럽게 그녀에게 깊이 汚染된 先入見을 씻어 버릴 것을 요구한다。佛教를 個人的 信仰으로 하전 안하전, 佛教를 이해하려면 습관과 因襲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방법으로 實在를 볼줄을 배울 必要가 있다。

여러분은 나의 佛教에대한 어루우치가 修辭學的 측면이였음을 알고있다。이것은 내가 本來 政治로 이끌렸기 때문이다。말하자면 나의 관심은 大衆속의 人間 즉 어떻게하면 사람들이 복종이나 對立보다도 協同 속에서 安樂하고 相互協助的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데 있어왔다。이것을 또한 哲學의 한 技藥으로서의修辭學의 主要 관심사이기도 하다。

修辭學은 人間相互關係의 방식을 다룬다。이러한 방식을 중의 하나가 民主的方式이다。그리하여 佛教修辭學에 대한 나의 관심은 어떻게 불교가 정치적 또는 사회적 民主主義에 관련하는 가에 대한 考察까지 포함하게 된것이다。

人間社會가 어떻게 組織되어야 하는가는 실로 심포지움의 결정을 기다릴 問題도 아니며 1년이나 4년 간격으로 實施되는 투표에 의한 문제도 아니다。거기에는 우리 美國人들이 慇懃과 大膽院에서 하는 것과 같은 問題가 근본적인 것이 要求된다。플라톤등 哲人政治에 대한 동경을 表現하면서 人間과 社會의 근본적 요청을 이며 깨닫고 있었다。自身의 個人的 이한 마을 정도로 작거나, 국가처럼 넓거나, 全世界로 확장되거나 간에), 즉 모든 賀花의 相互關係를 깨닫음으로써 비로소 成就된다。나자렛의 예수는 모든 사람은 兄弟保護者라고 가르쳤다。고오타마 붇다는 모든 사람이 單一한 우주의 모든 部分이고 결국 우리 各者는 그의 현재이며, 우리 모두는 하나의 肉과 靈이라고 가르쳤다。『너희들은 가장 微微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다。

그리하여 福祉國家를 위한 哲學의 基盤이 마련된 것이다。그것은 또한 緩和의 理念및 의무교육을 위한 支柱가 되었다。모든 개인은 自身의 단독과 행복을위해서 最善의 가능성을드러낼 수 있도록 도움받고 지도되어야 한다。그리하여 개인적 책임보다는 사회적책임이 강조되었다는 것이 佛教의 民主主義에 대한 관계를 고찰할때, 주목할만한 相反된 疑問이 생긴다。첫번째 질문은 『佛教에 民主主義를 부정하거나 違反하는 근본적이고 本質的인 무엇이 있는가?』하는 것이다。두번째 질문은 『佛教信仰은 民主主義에 根本的으로 好意的인가?』하는 것이다。

동일한 질문을 달리 표현하면 『佛教社會는 필연적으로 非民主的인가?』그리고 두번째는 『佛教는 民主主義를 지지하고 承認하는가?』가 될것이다。

매우 많은 佛教徒들 가지고있는 大韓民國으로서는 그러한 질문은 무척 중요하다。물론 그두 질문은 佛教가 政治와 無關하다는 섬언으로 無視될 수도있다。또 그러한 표기로 인해서 어떤 이들이 있는 것처럼 보일런지도 모른다。특히 政府樹立 이후 계속하여 일어난 寺刹紛爭과 기타 재산의 所有權이나 免稅에 관계된 한에서 그렇다。

그러나 佛教와 民主主義의 근본적관계에 대한 探求는 가볍게 다뤄질 것이 아니다。문제되는것은 人間 個人과 人間社會의 本質에 깊이 汚染된 先入見을 씻어 버릴 것을 요구한다。佛教를 이해하려면 습관과 因襲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방법으로 實在를 볼줄을 배울 必要가 있다。

여러분은 나의 佛教에대한 어루우치가 修辭學的 측면이였음을 알고있다。이것은 내가 本來 政治로 이끌렸기 때문이다。말하자면 나의 관심은 大衆속의 人間 즉 어떻게하면 사람들이 복종이나 對立보다도 協同 속에서 安樂하고 相互協助的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데 있어왔다。이것을 또한 哲學의 한 技藥으로서의修辭學의 主要 관심사이기도 하다。

修辭學은 人間相互關係의 방식을 다룬다。이러한 방식을 중의 하나가 民主的方式이다。그리하여 佛教修辭學에 대한 나의 관심은 어떻게 불교가 정치적 또는 사회적 民主主義에 관련하는 가에 대한 考察까지 포함하게 된것이다。

고오타마의 修辭學的 영향력은 요컨데 正統 힌두교와 유사하다는 것이 종명되였다。즉, 多樣한 現象의 배후에 있는 統一性의 追求, 격정에 대한 온화한 反應, 聽衆이 좋아하고 이해하고 있는 말로써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그것을 분명히 하고 또 說得시키는것, 聽者가 인정하는 전제를찾음으로써 結論을 支持하도록 하는 것, 非難이나 獨斷的인 論爭에 빠지지 않고 유모어와 익숙한 質例를 사용함으로써 말을 걸게 이끌어 가는 것 등이다。고오타마의 活動에서 기인하는 더욱 중요한 修辭學的 영향은 그의 지칠줄 모르고 또 끈질긴 布教精神이다。그는 衆生이 對話에 의해 濟度될 수 있다고 굳게믿었다。正等覺을 成就한 이래 그런 『大和』란 모든 實在의 相互依存性과 相互關係性을 깨닫음으로써 成就된다。그렇다。나자렛의 예수는 모든 사람은 兄弟保護者라고 가르쳤다。고오타마 붇다는 모든 사람이 單一한 우주의 同志로서 어깨를 나란히하여 存立할 수 있다는 나의 信念으로 더럽한 정이다。歷史的 우연에지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소위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란 일반적으로 유대-기독敎 人口에 제한되어 왔다는 것은 사실이다。물론 기독교인을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모두 독별히 민주주의적이였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民主主義는 기독교-유대 人口가 매우 소수인 세계의 여러나라에 도입되어 왔음을 우연한 것이다。歷史的 우연에지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소위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란 일반적으로 유대-기독敎 人口에 제한되어 왔다는 것은 사실이다。물론 기독교인을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모두 독별히 민주주의적이였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民主主義는 기독교-유대 人口가 매우 소수인 세계의 여러나라에 도입되어 왔음을 우연한 것이다。歷史的 우연에지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소위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란 일반적으로 유대-기독敎 人口에 제한되어 왔다는 것은 사실이다。물론 기독교인을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모두 독별히 민주주의적이였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어난 類似民主主義를 위해서 뿐 아니라, 民主主義가 發生하여 주된 발달을 이룬 西歐 國家들의 해서도 독특이 深刻한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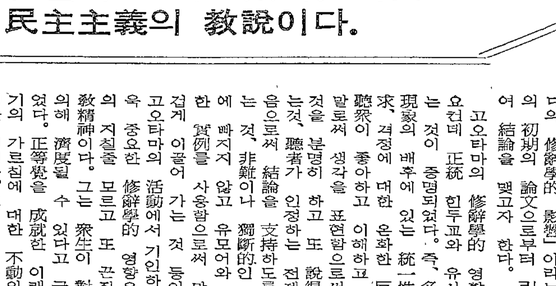
民主主義에 장해가 있을까하는 의문을 가진다면 지나친 紀愛로 보일 것이다。그러나 民主主義의장래에 더해 疑問을 일으키는 것은, 불멸 오랫부족의 質問은 아니다。철사 그렇하해도 그 대답을 우리 자신의 世代보다 다음 세대에 속한다。未知의 안개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일은 아니다。그러나, 비록 不確實의 暗黑속에서 그러한 문제를 움미할 수 있을 뿐이라 할지라도 무관심할 문제는 아니다。우리가 향하고 있는 行先地에 대한 계속적인 고려 없이는 현재에 있어 우리 自身을 知性的으로 統制할수 없게 된다。우리는 도달하고자 하는 目標를 항상 마음속에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우리의 目標達成을 위해서 그 展望을 결코 하야한 한다。手段의 限界와, 방부덧치게 되는 위험과 障碍들을 調査해야 한다。그리고 우리의 所望 달성의 기회를 늘일수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유대-기독敎的 西歐에서의 우리는 다채로운 政治的 民主主義의 向方에 대해 깊이 열려하고 있으며 심히 경계조차 하고있음을 認知하는 바이다。불보석 논쟁은 周知하는 바이나 戰後의 몇 십년 동안 民主主義가 발전해온 根本的 原理에 관한 決定이다。人間은 어떻게 相互依存하고 協同하는 社會를 유지하며 살아 갈 것인가? 이것이 어떠한 宗教體制에나 또 어떠한 政治形態에도 無關한 문제가 아니다。이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로 하여금 教會에 正面衝突하는 批判을 일으키게 했고 그가 그들에게 『나는 여기있다。신은 나를 돕는다。나는 달리 어쩔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의 바로 그문제이기도하다。이것이 鹿野園의 菩提樹밑에서 大悟을 얻은 고오타마 붇다를 일으나게 했고, 世上에 나아가 智慧를 펴도록 했던 것과 같은 種類의 關心이다。달스톤敎的 唯物論과 전혀 다른 진정한 宗教는 모든게 인에게 참된 自我와 초월성, 그리고 眞性의 完成에 대한 憧憬心을 준다는 바로 그 事實이다。

人間性에대한 이러한 생각이 정당 민주주의가 政治的 用語로써 制度化하려고 하는 그것이다。고성에 관한 決定이다。인간이란부엇이며 人間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어떠한 政治形態에도 無關한 문제가 아니다。이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로 하여금 教會에 正面衝突하는 批判을 일으키게 했고 그가 그들에게 『나는 여기있다。신은 나를 돕는다。나는 달리 어쩔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의 바로 그문제이기도하다。이것이 鹿野園의 菩提樹밑에서 大悟을 얻은 고오타마 붇다를 일으나게 했고, 世上에 나아가 智慧를 펴도록 했던 것과 같은 種類의 關心이다。달스톤敎的 唯物論과 전혀 다른 진정한 宗教는 모든게 인에게 참된 自我와 초월성, 그리고 眞性의 完成에 대한 憧憬心을 준다는 바로 그 事實이다。

人間性에대한 이러한 생각이 정당 민주주의가 政治的 用語로써 制度化하려고 하는 그것이다。고오타마는 그의 가르침을 듣고 믿도록 要請하는 특별한 권위도 내세우지 않았다。그는 個人이 그들의 能力·教育·社會的地位가 어떻든 간에 平等하게 대해져야 한다고 가르쳤다。이것은 분명 훌륭한 民主主義의 教說이다。

고오타마는 그의 가르침을 듣고 믿도록 要請하는 특별한 권위도 내세우지 않았다。그는 個人이 그들의 能力·教育·社會的地位가 어떻든 간에 平等하게 대해져야 한다고 가르쳤다。이것은 분명 훌륭한 民主主義의 教說이다。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대평양화학
부정의 경쟁은 몰아내어 밝은 사회 만들기 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 아름다운 경쟁대열 참여업체

그대 곁에 니 곁에!

젊음은 언제나 싱싱해야 합니다.
늙지도 않았으면서 늙은 척하지 말고
하루에 한번쯤, 당신의 가슴을 적시는
젊음의 땀방울을 확인토록 하십시오!
성실하게 일하고 호쾌하게 즐기는 남성의멋 바이스터!
남성화장품 바이스터는 가장 정다운 당신의 친구입니다.
바이스터 V 남성화장품 Visler V

햇빛 밝게 쏟아지는 캠퍼스 잔디위에
감미롭게 스며드는 바람결의 속삭임!
더러는 사랑하는 이의 노래소리 들려오고, 그 은밀한
눈짓속에서 황홀히 번져오는 젊음의 향기여!
아무래도 아모레예요
아모레타미나 화장품

*바이스터 오데코롱·3,500원 *바이스터 스킨로숀·1,200원 *바이스터 헤어스퍼·950원 *아모레타미나 로젤크림·2,300원 *아모레타미나 모이스트메이컵·1,000원 *아모레타미나 오데코롱·3,500원

開校70周年紀念 佛教와 現代世界에 관한 世界佛教學術會議 特輯

西歐의 佛教學과 그 現實的 意味

美國佛教, 中國4世紀에 해당

經典등한 佛教信徒들 많아

心理學, 不安克服의 수단으로 硏究되기도

게 대처해야 할것인가? 이에 本校는 개교70주년을 기념하여 『佛教와 現代社會』라는 主題로 世界佛教學術會議를 개최하고 있다. 총70여명의 國內·國外의著名한 學者가 참가한 이 佛教學術會議는 「佛教」와 「現代」라는 問題에 새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다. 本紙에서는 이번호부터 다음호까지 學術會議에서 發表된 主題論文가운데 主要한 몇편을 전재한다.

<編輯者註>

뉴욕타임즈의 최근의 기사를보면 우리는 미국 여서의 불교의성장이 비로소 1960년대에 北美에 도래한 새로운 현상이라는 인상을 받게된다。이와 같이 불교를 항의 소등과 마약사용, 사회적 10년간에 일어난 갈은일로 보는 것은, 불교의 전통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역사에대한 무지에서 나온 데서 비롯된 것이다。

만일 그기사의 필자가 1960년대의 미국에서보다 1860년대의 미국 안에서 더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신봉하고 그의식을 행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에게는 아마도 큰충격이 될것이다。

그러나 19세기의 佛教人들은 改宗한 白人들이 아니였고 따라서 그들은 美國에 佛教가 언제 到來했는가를 記述하려는 목적을 가진 美國언론계로서는 거의 관심거리가 되지 못하고 말았다。

現代國際社會와 佛敎

○…… 佛敎가 古代印度의 「고오타마·싣달타」라는 한 젊은 覺者로부터 出發하여 2千5百여년동안 人類에게
○……끼쳐온 精神的 영향은 이루 말할 수없이 크다. 즉 지역적으로 東西로는 韓國을 비롯한 일본 열도에
○……서 카슈만까지, 南北으로는 몽고의 사막에서 자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져 人類發展에 정신
○……적 支柱역할을 해온 것이다. 이러한 佛敎는 이제 精神文化不在와 혼탁한 기계문명이 만연된 現代社會
○……에 있어 한 救濟者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現代社會의 정치, 경제, 思想의 혼돈속에서 佛敎는 어떻

宗敎間의 對立과 佛敎의 寬容

『宗敎간의 對立과 佛敎의 寬容』이라는 主題중에서 먼저 나는 유태·基督敎, 이슬람信徒들간에 널어지고 있는 지난 세기와 現今에 이르기까지의 激烈한 對立에 關해서 論하고자 한다. 그 對立은 越南에서 벨쉐스트로 옮겨졌고 北아일랜드와 베이루트의 카톨릭敎徒들과 改新敎徒의 對立, 그리고 레바논에서의 회교도들과 基督敎徒의 對立에 관한 전쟁의 보고서들에서 충분히 알고있다。

다음으로 나는 아세아에 있어서 佛敎의 興亡성쇠를 通해 아세아 諸國間에는 宗敎戰爭을 일으키지 않고 生産的인 相互作用을 행해 왔던 역사적사실을 말하고자 한다。나는 또한 佛敎의 非寬容的인 사실들의 예를 들면 中世 日本에서의 僧兵들의 격렬한 전쟁에 대해서도 言及할 것이다。어느 社會일지라도 非寬容에서 면제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한국·옳은 이렇게 말했다。『만약 어떤 社會가 完全한 寬容의 境地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國民들은 살기 위해서 非寬容의 섭(聶) 을 발견하고야말 것이다』同時에 나는 〈文化增强者〉로서도 한〈和解者〉로서의 역할을 했던 티베트의 佛敎에 대해서도 言及할 것이다。그리고 나는 佛敎的 寬容이 可能한 이유들을 提示하고자 한다。『합理的에서 心理的인 要因으로 이르는 모든 길, 그리고 移住, 商業, 戰爭과 平和 음식과 日光을 包含한 모든길』들은 주어진 主題에 비추어 나의 이러한 試圖는 너무 광범위한 것이다。따라서 나는 主題의 왈전한 討議보다는 조금다른 角度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그것은 지난 20년동안 내가 北美에 머물면서 늘 시도하고 싶었던 課題이기도 하였다。

1、佛敎의 緣起

宗敎戰爭이 없었다는 史實이 證明하는 바와같이 佛敎의 寬容이 가능한 이유를 다음과 같은 文章속에서 찾을 수 있다。

유태교·기독교·회교의 전통과 비교해 볼때 불교는〈非宗敎的인 종교〉였다。이 놀 이란 언급에 관해 설명해 보자。질문이 옳다면, 그르던간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묻고 있다。『全能的의 神을 否定하는데도 불구하고 불교를 종교라고 부를 수 있는가?』이는 유태·基督敎·回敎의 전통에서는 神을 창조자로 보고 있는데 비해, 佛敎에서는 창조에 관한 眞想을 정중하게 거절하기 때문일 것이다。餘他의 敎主들이 神을 萬有의 主宰者로서 맞아들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침묵을 지켰다。佛法은 아시아 全域으로 傳播되었지만, 中央集權的인 機能는 결코 행사되지 않았었다。佛敎者들이 他宗敎에서 많은 관심을 갖지는않았지만 僧侶들은 世俗의 統治者들 앞에서 그들 宗敎의 본래모습을 거리낌없이 드러내 보였던 것이다。또끝으로 世俗의 절서(dharma)를 믿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 세속의 지배자들이 주는 統治方法을 받아 들이는것은 아니다。세속의 명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명철한 분석적인 洞察을 강조하지만, 반면 同族본위의 差別을 다하여 너의 주 하느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여 萬有의 하느님에로 無限한 獻身을 요구한다。

이 가장 强力한 말들에 관해 찰스하스틀은 이렇게 말한다。

『이 짧은 한文章안에서「너의~ 너의 같은 말들이 네번이나 反復된다。우리들 중의 누구도 그 어떤 獻身도, 感謝도, 親心도 許諾받은 이는 없다。우리는 지난 후에 복서를 이루리라。그 興味로 가질수 없는 것이다。』

또한『너가 그들에게 命하여 이루느니 너희들이 나에게 命하여 이루었던 아마도 經典에 의거했다고 한다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天高의 깨달음을 求하는 으뜸 여정을 통해 나는 仙人을 만났다。여러 劫 이전 히말라야의 그 仙人은 바로 지금의 나였다。』바로 이 나였다。

이것은 佛敎經典에도 同一한 表現이 있는지를 알아 보려고 努力할 때에 認識하게 되는 충격적인 事實이다。유태, 基督敎, 회교, 힌두敎의 전통에 있어서〈關係〉이란 자연적인 相互聯關이 아니라 意圖的이며 高度로 人格的인 고도로 選擇的인 고人格的인 관계의 聯敎를 내가 느끼기로는 여수그리스도의 말씀에 依해 씌어진 新約聖書도 마찬가지이다。

『주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내 몸을 가지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너희들을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의 몸이니 이것을 行하여 나를 기념하라」하시고 食後에 또한 이와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잔은 나의 피로써 세운 새 언약이니라」라고 하셨다。(고린도전서 11장 24, 25)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正直」한 관계 또는 「나와 너」의 關係는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그러나 나의바가 정확하게 적하고 있듯이 「힘에는 힘으로맞서지 않는 限」 진실로 성취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그리고 人間의 무엇이 무엇인지 理解할 수 있을런가。이 두 詩句에서 얻게 얻을수 있는 명확한 인상을 희미게 할 불필요한 말을 더 보태고 싶지 않다。佛敎의 緣起와 관용을 보여주는 또하나의 좋은 例證은 「無記經」에서 찾을 수 있다。

「無記經」은 個別的인 事物과 全宇宙 사이의 相互聯關性을 명료하게 展開하는 代表的인 例이다。그 經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물에 있는 하나의 월구멍 안에 은 有情들이 다 갖추어 있다』『모든 事物이 하나의 월구멍에 있다』또한『눈에 보이는 부처님의 몸은 모든 부처님의 大法身도 같은 德性을 敎示한다』

이러한〈華嚴世界〉의 世界觀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極端的인 世界觀을 피하는 것이다。

첫째, 하나의 그리고 단 하나의 原理아래서 그 어떤 多樣性도 寬容하지 않는 世界。

둘째, 全體的으로 無秩序하게 混亂되어있는 多의 世界。

이러한 經의 基本的인 德目은 八世紀경의 韓國僧侶 明皇가 다음과같이 要約하고 있다。

輪廻와 涅槃의 바탕이 같이 아니며

〈브리티쉬·콜롬비아大敎授〉

열반을 가까우나 衆生들은 알지 못하고

깨달음이 가까워도 그것을 어렵게 여긴다。

本來 물과 마음에는 生도 없고 滅도 없으며

이것이 實로 聲과 想念의 境地일세。

깨달음이는 하나에서 一切를 보고 一切에서 하나를 본다。(역나하면) 一切가 하나이고, 하나가 一切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佛國土는 十方으로 펼쳐져 있으나 本來의 한 國土는 큰 것이 아니다。

하나의 佛國土엔 十方의 佛國土가 담겨있다。마치 鉢地에서 微塵이 그러하듯이。

微塵은 커짐이 없고, 佛國土의 本性도 以前 그대로이다。

깨달음이는 한 생각속에 深奧하고 無數하고 廣大한 時空을 了解한다。그러나 그 한 생각 전통의 支配的인 指導原理가 되지는 못한다。問題의 複雜化를 피하기 위해서, 또 이러한 東洋과 西洋의 問題에 對해 보다 나은 見解를 갖기 위해서 中村元씨의 역작인 『印度人의 思惟方法』을 參考하면 좋을 것이다。

中村元씨는 印度人의 思惟方法의 두 特徵으로 ①普遍的인 절적인 면서도 雜亂하지 않는다。 ②個別的인 法은 一切法과 本質的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一切法은 個個의 法과 함께 있는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원리에 근거해서 불교의 寬容性을 그 궁극에 까지 이르게 된다。예나하면 어떠한 실재이던지 보편적인 調和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실재와 무관하지 않고, 또 그들에대해서 유함적인 존재가 되지는않기 때문이다。이에 관한 유명한 은유로서 金獅子와 因陀羅網이 널리 알려져 있다。여기서 우리는 佛敎의 緣起와 寬容을 찾아 볼수 있다。그리나 中村元씨가 우리에게 경고하듯이 반번에 속단완결론으로 飛躍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東西의 比較問題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暗示를 줄 것이다。

宗敎戰爭이 없었다는 史實이 證明하는 바와같이 佛敎의 寬容이 가능한 이유를 다음과 같은 文章속에서 찾을 수 있다。

유태교·기독교·회교의 전통과 비교해 볼때 불교는〈非宗敎的인 종교〉였다。이 놀 이란 언급에 관해 설명해 보자。질문이 옳다면, 그르던간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묻고 있다。『全能的의 神을 否定하는데도 불구하고 불교를 종교라고 부를 수 있는가?』이는 유태·基督敎·回敎의 전통에서는 神을 창조자로 보고 있는데 비해, 佛敎에서는 창조에 관한 眞想을 정중하게 거절하기 때문일 것이다。餘他의 敎主들이 神을 萬有의 主宰者로서 맞아들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침묵을 지켰다。佛法은 아시아 全域으로 傳播되었지만, 中央集權的인 機能는 결코 행사되지 않았었다。佛敎者들이 他宗敎에서 많은 관심을 갖지는않았지만 僧侶들은 世俗의 統治者들 앞에서 그들 宗敎의 본래모습을 거리낌없이 드러내 보였던 것이다。또끝으로 世俗의 절서(dharma)를 믿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 세속의 지배자들이 주는 統治方法을 받아 들이는것은 아니다。세속의 명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명철한 분석적인 洞察을 강조하지만, 반면 同族본위의 差別을 다하여 너의 주 하느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여 萬有의 하느님에로 無限한 獻身을 요구한다。

이 가장 强力한 말들에 관해 찰스하스틀은 이렇게 말한다。

『이 짧은 한文章안에서「너의~ 너의 같은 말들이 네번이나 反復된다。우리들 중의 누구도 그 어떤 獻身도, 感謝도, 親心도 許諾받은 이는 없다。우리는 지난 후에 복서를 이루리라。그 興味로 가질수 없는 것이다。』

아시아 史上 宗敎戰爭 없어

티베트 佛敎「和解者」의 役割

敵과「만남」괴하지않는 佛敎

緣起 思想, 오늘에 收容돼야

他敎에 比해「非宗敎的 宗敎」

佛敎는「全能한 神」을 否定

◇坡州 龍尾里 石佛立像 〈京畿 坡州所在〉

주는 또하나의 좋미있는 경우는 大乘經典들중 「妙法蓮華經」속의 더바닷타에 관한 유명한 章에서찾을 수 있다。〈神의 贈物〉이라는 평범한 말에 색겨진 데바닷타라는 이름은 日本人에게 불가피한 代名詞로 깊이 뿌리박혀 있다。

이것은 확실히 하느님의 聖約을 잘못 適用한 것이였다。너이버는 제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事件에 內包되어 있는 眞理에 대한 分明한 盲目의 拒否였다。그리고 그것은 이룰테면 그것은 이룰테면 人間으로 하여금 그것을 이룰테면 그것을 이룰테면 그것을 이룰테면

開校70周年紀念 「佛教와 現代世界」 學術會議 特輯

平和와 協調의 原理로서의 佛教

平和와 協調는 現代라는 狀況에 있어서는 국제간의 일에 속하는 바가 매우 크고, 그것이 정치·경제등에 반영되면서 維持·强化·增進되지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다。다만 그것만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問題라고 생각된다。그것은 먼저 첫째 각개인의 그것을 향한 努力과志向등이 그 根抵에 없으면 안되며, 그리고 그 개인 개인을 지탱하는 것은 깊은 思想이며, 특히 宗教라고 하는것은 모든 사람에게 분명한 사실이다。특히 그 性格으로부터 보아 각각 개인으로 하여금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하고 그 實踐을 指導하는 것인 만큼平和와 協調라는 原理를 宗教가 확고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각 개인의 그리고 社會를 통해서 그 國家의, 그리고 그 國家를 통해서 국제간의 平和와 協調라고 하는것은 아니다。그렇지는 않아도 각각 개인의 욕망은 모든 사람에 있었고, 격렬한 苦行이 있었고 苦行을 버린 후의 菩提樹下의 瞑想이 있었다。그 해결을 할 수 있었던 점에 正覺者 붓다의 成道가 있고, 다섯 사람의 比丘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 대한 教化, 說法이 있었으며 佛教는이렇게 해서 출발하고 확대하고 발전하고 展化된 것이다。

三枝充悳 〈日, 쓰루바大教授〉

緣起는 否定을 通한 涅槃의 永續이 곧 平和

滿足할수 없는 「欲望」은 自己矛盾

協調아닌 協調原理

한 宗教가 佛教라고 생각된다。

勿論 어떤 宗教도 극히 一部의 극히 獨善的이고 狂信的이고 排他的인 경향을 除外하면, 거의 모든 宗教가 平和와 協力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宗教의 內部에 있어서만 通用되고 그것이 다른 宗教와의 平和와 協力의 경우가 되면 전혀 發展을 하던가 혹은 發展은 하더라도 그 목소리가 매우 미약하게 들린다。그 점에있어서 佛教는 그內部에 있어서平和와 協力을 根本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宗教나思想에 대해서도 결코 敵意나 排他性을 갖지않고 적극히 包容的이며 그리고 그와같이 推移해온 것을 2천5백여년의 歷史에 비추어 보아도 分明한 사실이다。

佛教는 宗教戰爭이나 宗教裁判의 例와 같은 것을 알지못할 뿐더러 印度에 있어서는 리아王朝의 아쇼카王이나 쿠샤나王朝의 카니시카王등의 佛教保護政策이 취해진 경우에도 印度의 다른 宗教 즉 브라만教 힌두教 자이나教 아지비카教등이 마찬가지로 두텁운 보호를 받고 있었다。이렇게 생각하면 단순한 선전으로서가 아니라 佛教가 平和와 協力을 根本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宗教나思想에 대해서도 결코 敵意나 排他性을 갖지않고 적극히 包容的이며 그리고 그와같이 推移해온 것을 2천5백여년의 歷史에 비추어 보아도 分明한 사실이다。

佛教는 宗教戰爭이나 宗教裁判의 例와 같은 것을 알지못할 뿐더러 印度에 있어서는

山岳訓練

金政鉉

고된 訓練… 우리의 使命과 義務

「우리 江山」 또 피로 물들일수야

장인한 체력및 투지력의 배양, 정예를 극복및 산악등반 기술배양과 담력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산악훈련을 받게된 것은 실로 뜻깊고 자랑스러운 일이였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산을 자주 찾던 나에게 산악 정신의 자신감을 불러 일으켜주였고 「전쟁에는 2등이 없다」는 정신을 앞으로의 어떠한 경우에도 낙오자가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도록 해주었기때문이다.

산악 훈련장에 도착한 첫날은 짧을 줄고 너무 한 형사인 敎養學部 幹部修練大會 (코로젝트 76)에 동참할 기회를 얻어 함께 1주일을 함께 생활을 한 추억으로 구름에 드문 快塾 학우 PT체조, 선술, 보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다음날인 26일오전, 부군단장님을 모시고 入校式을 가졌는데 긴박한 조국의 현실과 육수훈련의 의의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이제부터 일주일간 「79번 울페미」가 되는 것이다。(훈련장에서는 피교육자들 을페미라고 부르는데 내번호는 79번이였다)

다음날인 26일오전, 부군단장님을 모시고 入校式을 가졌는데 긴박한 조국의 현실과 육수훈련의 의의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이제부터 일주일간 「79번 울페미」가 되는 것이다。(훈련장에서는 피교육자들 을페미라고 부르는데 내번호는 79번이였다)

몸에서 불이라도 날 것같이 따가운 햇살을받으며, 훈련을 받는 정련은 물론 없지만 아무런 사고없이 무사히 훈련을 끝낼수있은 데엔틀림없이 협심을 이해하는 교육대 덕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한다.

어쨌든 우리는 학교를 졸업할때부터 이미 여러한 어려운 훈련을 받아 오와 유사시에는 총을들고 나가 적과 싸우겠다는 신념으로 확고정신무장이 되어 있었다.

적을 경험해 보는 군대생활이 어렵고 고되고 한 점도 많았지만 긴장감 넘치는 精神力문제가 아니였다는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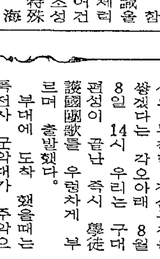
하루, 일과는 아침6시 기상하여 애국가 봉창, 구령연습, 고향에 대한 묵념의 순으로 시작되였다。

역시 즐거운 시간은 식사시간!

구대원이 모두 식탁에 앉으면 구대장 지휘아래 「식사에 대한 감사의묵념」을 하고 「식사개시」라는 명령이하달되면 「조전발살-감사이 떠졌습니다。

體力보다 精神力이 문제

"새로운 땀으로 충만돼라"



속달기는 모형탑 훈련도 한 가지이다。

우리의 몸을 땀에 젖어 말라버린 소금이라도핥아 먹고 싶을정도로 힘들었다。

훈련을 받기 위해 울라갔을때가 제일 괴로웠다。뒤에 서 있는 조교가 「기분 좋습니까? 아직 자신 있습니까? 아인 없읍니까? 이름을 세번 복창하십시오」라고 크게 외쳤다。이런때 에인의 이름을 복창해야 한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다。

에인이 없더라도 그누군가의 가장 아끼는 이의 이름을 복창한다는것을 새로운 자기확립이기도 했다。

「여러분을 데려올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이것은 우리가 체력적으로 강했다기보다는 정신력이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 내재되어 있었다는 증거이다。

내무반에 입도되어 여장을 풀고, 옷을 입으기 무섭게 구보와 체력검사를 받았다。

이 검사에 통과되어야만 다음날 入所式을 하고 훈련에 들어갈 수있는 자격을 얻는것이다。

구대원이 모두 합격을 하였다。그러나 육중한 체구의 몇분은 구보에 뒤쳐지기도 했다。

훈련을 받기 위해 울라갔을때가 제일 괴로웠다。뒤에 서 있는 조교가 「기분 좋습니까? 아직 자신 있읍니까? 이름을 세번 복창하십시오」라고 크게 외쳤다。이런때 에인의 이름을 복창해야 한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다。

에인이 없더라도 그누군가의 가장 아끼는 이의 이름을 복창한다는것을 새로운 자기확립이기도 했다。

무사히 훈련을 마치고 퇴나올때 우리는 이미 연약했던 우리가 아니였다。

입영식는 저절로 군가가 터져나왔고, 머리 속에서는 한국의 「나는 행복한 사나이다」는 말이 맴돌았다。가슴속에서는 결단코 굽신당의 양육을 분쇄하고 平和統一을 이루겠다는 使命感이 솟구쳐 올랐다。

〈師範大·體教科〉

大學生特殊訓練參加記

大學生들에게 軍의 훈련과정을 이수케 함으로서 國家安保意識을 고취하고 강인한 체력과 정신을 연마하여 전관 大學氣風을 조성하기위한 大學生 特殊훈련인 山岳, 공수, 海洋훈련이 전국48個大學 6百9名이 참가한 가운데 7월26일부터 施행됐다。本校에서도 各分野에 6名씩 참가했는데 이에 그 參加記와 女軍 入所훈련記를 싣는다。

〈編輯者〉

점음을 굳건히 단련한다

◇「옷에몸을 맞춘」 훈련이었지만 「국방색 마음」은 決意로 다져졌다。

싸우던서 공부하는 學徒의 본분을 다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이제부터 일주일간 「79번 울페미」가 되는 것이다。(훈련장에서는 피교육자들 을페미라고 부르는데 내번호는 79번이였다)

다음날인 26일오전, 부군단장님을 모시고 入校式을 가졌는데 긴박한 조국의 현실과 육수훈련의 의의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몸에서 불이라도 날 것같이 따가운 햇살을받으며, 훈련을 받는 정련은 물론 없지만 아무런 사고없이 무사히 훈련을 끝낼수있은 데엔틀림없이 협심을 이해하는 교육대 덕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한다。

어쨌든 우리는 학교를 졸업할때부터 이미 여러한 어려운 훈련을 받아 오와 유사시에는 총을들고 나가 적과 싸우겠다는 신념으로 확고정신무장이 되어 있었다。

적을 경험해 보는 군대생활이 어렵고 고되고 한 점도 많았지만 긴장감 넘치는 精神力문제가 아니였다는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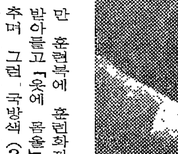
하루, 일과는 아침6시 기상하여 애국가 봉창, 구령연습, 고향에 대한 묵념의 순으로 시작되였다。

역시 즐거운 시간은 식사시간!

구대원이 모두 식탁에 앉으면 구대장 지휘아래 「식사에 대한 감사의묵념」을 하고 「식사개시」라는 명령이하달되면 「조전발살-감사이 떠졌습니다。

化生放·射擊등 「良好!」

단련이로 땀에 젖은 4日



사실 우리동대 여학생들은 大露營을 앞둔 하기간부 수련대회를 마친 다음 날부터 이곳에 입소하였다。며칠에 모두들그 역동적 책 폴리지 않아 결국 강인한 체력및 투지력의 배양, 정예를 극복및 산악등반 기술배양과 담력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산악훈련을 받게된 것은 실로 뜻깊고 자랑스러운 일이였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산을 자주 찾던 나에게 산악 정신의 자신감을 불러 일으켜주였고 「전쟁에는 2등이 없다」는 정신을 앞으로의 어떠한 경우에도 낙오자가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도록 해주었기때문이다。

산악 훈련장에 도착한 첫날은 짧을 줄고 너무 한 형사인 敎養學部 幹部修練大會 (코로젝트 76)에 동참할 기회를 얻어 함께 1주일을 함께 생활을 한 추억으로 구름에 드문 快塾 학우 PT체조, 선술, 보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몸에서 불이라도 날 것같이 따가운 햇살을받으며, 훈련을 받는 정련은 물론 없지만 아무런 사고없이 무사히 훈련을 끝낼수있은 데엔틀림없이 협심을 이해하는 교육대 덕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한다。

어쨌든 우리는 학교를 졸업할때부터 이미 여러한 어려운 훈련을 받아 오와 유사시에는 총을들고 나가 적과 싸우겠다는 신념으로 확고정신무장이 되어 있었다。

적을 경험해 보는 군대생활이 어렵고 고되고 한 점도 많았지만 긴장감 넘치는 精神力문제가 아니였다는 생각된다。

하루, 일과는 아침6시 기상하여 애국가 봉창, 구령연습, 고향에 대한 묵념의 순으로 시작되였다。

역시 즐거운 시간은 식사시간!

구대원이 모두 식탁에 앉으면 구대장 지휘아래 「식사에 대한 감사의묵념」을 하고 「식사개시」라는 명령이하달되면 「조전발살-감사이 떠졌습니다。

體力보다 精神力이 문제

"새로운 땀으로 충만돼라"

속달기는 모형탑 훈련도 한 가지이다。

우리의 몸을 땀에 젖어 말라버린 소금이라도핥아 먹고 싶을정도로 힘들었다。

훈련을 받기 위해 울라갔을때가 제일 괴로웠다。뒤에 서 있는 조교가 「기분 좋습니까? 아직 자신 있읍니까? 이름을 세번 복창하십시오」라고 크게 외쳤다。이런때 에인의 이름을 복창해야 한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다。

에인이 없더라도 그누군가의 가장 아끼는 이의 이름을 복창한다는것을 새로운 자기확립이기도 했다。

무사히 훈련을 마치고 퇴나올때 우리는 이미 연약했던 우리가 아니였다。

입영식는 저절로 군가가 터져나왔고, 머리 속에서는 한국의 「나는 행복한 사나이다」는 말이 맴돌았다。가슴속에서는 결단코 굽신당의 양육을 분쇄하고 平和統一을 이루겠다는 使命感이 솟구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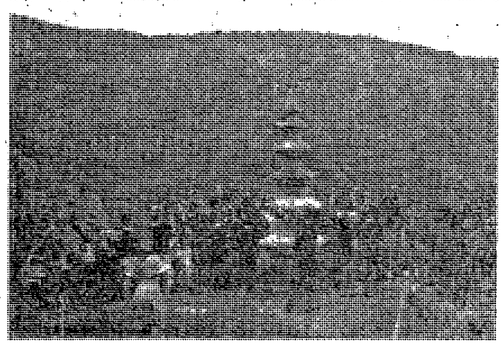
〈師範大·體教科〉

女軍入所訓練記

金圓卿

〈서울敎大敎授〉

"내일다시는 없을 東國人들"



◇五歲庵 사리탑앞에서 만세삼창을 부르는 修練大會 대원들。

教養學部修練大會同參記

金圓卿

〈서울敎大敎授〉

"내일다시는 없을 東國人들"

이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東國大學校가 파거 半世紀에 걸쳐 현대사의 격동의 소용돌이속에서 大學理念의 구현에 꾸준히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는 것은세상이 아는 일이다。이러한 東國大學의 자랑스런 이미지를 나타내는 한 형사인 敎養學部 幹部修練大會 (코로젝트 76)에 동참할 기회를 얻어 함께 1주일을 함께 생활을 한 추억으로 구름에 드문 快塾 학우들이 모두 모였다。

80명과 指導敎授 10여명의 구성멤바에 7일간의 일정으로 韓國屈指의 靈山인 雪嶽山을 路營行軍으로 등반하는 것을 修練內容으로 삼고 있었는데, 이것은 凡人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위험률이 따르는 行事로서 많은人員의 統率도 문제지만 體力과精神力이 고도로 요청되는 수련행사였다。

그러나 이 커다란 행사가 主管하는 교수와 학생의 지극히 밀한 계획과 合理的인 조직, 돌출됨 없는 준비가 토대되어 일호의 차질이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參與하는 사람으로서 東大人의 높은 知性과 克己獨行하는 修道姿勢, 團合心에 새삼 敬意가 앞섰다。

모든 일은 뜻이 분명해야 하고 目的이 뚜렷해야 값어치가산다。東大의 「프로젝트 76」 修練大會는 東大 學生들이 幹部가 되기 위해서 솔선 고행을 하면서 리더의 자격을 갖추는 과정이다。

남을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스스로를 피로운 試練 속에 던져 진리의 목소리를 듣고, 참을 피로움속에서 찾는 실천을통해서 자신의 微少함을 살펴보는 이 大會의 趣意는 저 인류에게 빛을 남긴 많은 先哲들이 따랐던 길이기도 하다。

어서였다。더구나 山을 좋아하는 나에게 있어 山은 항상 敬慕의 대상이였다。

모든 일은 뜻이 분명해야 하고 目的이 뚜렷해야 값어치가산다。東大의 「프로젝트 76」 修練大會는 東大 學生들이 幹部가 되기 위해서 솔선 고행을 하면서 리더의 자격을 갖추는 과정이다。

남을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스스로를 피로운 試練 속에 던져 진리의 목소리를 듣고, 참을 피로움속에서 찾는 실천을통해서 자신의 微少함을 살펴보는 이 大會의 趣意는 저 인류에게 빛을 남긴 많은 先哲들이 따랐던 길이기도 하다。

細心한 敎育的 배려에 感明

스스로 試練에 뛰어든 젊음들

이번 修練大會 幹部들은 모두 學業과 軍務를 병행하는 학생들이였다。

그들은 모두 학교에서 軍事訓練을 받고 있는 學生들이였으며 또한 學生들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였다。

그들은 이번 修練大會에 참가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다。

그들은

歡迎마을

黃淸圓

그 아무도 들아오지 않는 마을에는
아아! 말은 하늘 하나 였다。
달린 문 돌으로 넘나드는 잠을 뿐이다。
江 물은 눈 안에서 흐르다
바다 곁에 가 땃닛으로 피는데
살(肉) 속에 부서지는 정쟁이들。
몇 해 전에 죽은 색도 띄리고
늘상 都市로 결여가는 바람으로 보이면니
한줌 무덤의 흙으로 가루엮져 살라니
江 뚝 너머 顯頭에
소리나지 않게 눈이 내리는 날
종이로 접어둔 魚族들이 面壁을 한다。
말마다 마을 앞엔
祖國의 이빨이 부러져
참 한 빛소리로 떠다니고。

〈佛敎大·僧伽科〉

8월과 젊음

金 熙 哲

금년8월에는 기쁘고 슬픈두가지 큰일이 생겼다。五輪에서의 첫 금메달。몬트리얼올림픽에서 애국가가 연주되던 날 한반도의 모든방방곡곡이 금메달의 금빛으로 번쩍이는 것 같았다。

8·15사건。겨레 모두가 흥분하고 소리 지르며 격분하여 주먹을 내둘렀다。

이 두가지 일은 하나는 기쁘고, 하나는 슬픈 일이다。해방초 우리에게 8월은 기쁨과 슬픔의 달로 주어진 듯 하다。해나면 나라를 잃은 날도 나라를 다시 찾은 날도 8월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8월은 눈물의 달인지도 모른다。빼앗기고 잃다가 참고 견디어 변 숭리의 기쁨은 가장 장전 눈물이니겠는가?

이렇듯 겨레가 울고, 웃고 가장 민감한 감정 폭발을 하는 8월은 그래서 그 내용이 젊은이와 닮은것 같다。

금년 8월에 모든 국민이 젊은이처럼 손벽치고 주먹 쥐었지만 정작 젊은이는 냉철하게 생각한다。

주위엔 우리 젊은이를 눈물나게 만드는 너무도 많은 일이 있다。

다스한 기운이 였다。지금은 왕년의 명전 하나로 뛰티는 변쳐스악단이 내한공연을 할때 그렇게 젊은이의 유행가를 쉽어 한다던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하고 그냥 감탄하고 그냥 칭찬하였다。

그들의 긴머리의 율동에 박수를 보내며 즐거워하는 그들이 왜 그렇게 국내대중가요는 천대하는가 말이다。벤처스악단이 공연할때 어떤 한 복길은 중년부인이 女歌手인 자기 딸을 외국에서 그들이 출세시켜 주려고 하루의 정과를 반성하고 문제점도 전개하였다。그 대안에 대해論議를 제시하여。그 토론이 이렇듯 꽉 차여진 계획으로 평가회시간에는 가끔 울다가 웃다가 동토론의 분발세례를 받는 隊員도 있지만, 『使命感과 精神力으로 잘 견디어 나가고 있다』는 한 대원의 말이。

현지에 도착하면 15일 여장을푼 다음 쉴 시간도 없이 주민들과의 全體會議를 열어 봉사활동의 취지와 意義를 認識시켰으며, 주민들의 가장 요청을 듣는등 폭넓은 토의를 16일부터는 활동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활동이 전개되였는데 그날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활동하고 있다。

이 활동은 주로 보건위생과 농촌계몽에 치중하고 있는데 보건위생은 의료반이 맡아 하고 있으며 농촌계몽은 농촌지도자들과 협의하여 그 지역에 맞는 계획을 세워 실천하고 있다。

이 의료반은 의사 2명, 간호원 2명, 약제사 1명, 운전사 1명, 통역 1명, 그리고 학생 3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활동하였